

동아대학교 또 한번의 도약을 전하는 110번째 소식지



Issue Focus	05 지역과 함께-동아마라톤 대회	10 동아대 교수들 빛나는 성과를 걷다
	06 주민대상 인문학 특강	11 2017년 동아인들의 힘찬 도약
	07 지역사회 향한 문화혜택 제공	
	08 동아의 미래-Quantum Leap 2024+ 성과 점검	
Hot News	12 자랑스런 동아인상 수상	15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13 명예언론학 박사 학위 수여	16 태권도 시범단 미국 3개 순방 공연
	14 저명한 석학들이 오다	18 패션명문 동아를 각인하다
Dong-A People	26 나는 건축가로소이다 _ 건축학과 승효상 석좌교수	
	30 머리는 잊었지만 가슴이 기억한 그 한마디 _ 사랑병 파트너 이건설 학생	
	32 나의 무대 나의 인생 _ 배우 박지일	
Happy Donation	34 봉어빵 장학금 기부	40 발전기금 / 장학기금
	35 노상운 교수 4남매 5,000만원 기부	42 후원의 집
	36 학군단 총동문회 6,000만원 기부	44 기부안내 / 발전기금 납부방법
	37 김미애 변호사 장학금 쾌척	

소식지 제호소개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산세리프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이다. 페노는 일정한 굵기 대신 굵고 가는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하여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하였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내었다.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동아대학교가 개교 71주년, 한석정 총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소식지
동아는 지금 (통권 제110호)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인
한석정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www.fund.dong.ac.kr

편집디자인
대훈기획 051)-898-0330





지역과 함께 뻗어나가는 거점 사립대학 동아대학교

지난 2017년은 유난히 동아인들의 '도전'이 빛나는 한 해였다. 투지와 인성을 갖춘 '동아젠틀맨' 양성을 위해 신입생들은 '무도와 인성'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수강했고,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극한 체험도 두려워하지 않은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동아대학교의 '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했기에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에는 지역주민과 동아인 1,500여 명이 참가해 큰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석당박물관과 석당미술관의 전시, 인문역량강화사업단 등에서 개최한 각종 인문학 특강은 부산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상점과 부산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부산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했다.

지역주민 1,500여 명이 함께 뛰다

동아대학교 개교 71주년을 맞아 개최한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가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30일에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 코스 진행과 경기운영, 행사장 조성, 유관기관 협조, 부대행사 및 이벤트는 모두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 특히 참가자들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와 페이스페인팅, 무대행사, 전시회 등이 모두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승학캠퍼스 정문에서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강변도로를 거쳐 을숙도공원을 돌아 다시 승학캠퍼스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7.1km 구간을 완주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 스포츠타월, 스포츠짐백, 텀블러 등 기념품과 드론, 화장품세트, 백화점 상품권, 블루투스 스피커, 헤어밴드, 스포츠 팔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마라톤이 끝나고 동아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제교류 행사 '인터내셔널 데이'와 총학생회 주관 가을 무대행사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촬영지로 활용된 캠퍼스, 부산 홍보효과까지 '특특'

72년의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동아대학교 캠퍼스가 영화나 드라마 등 인기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으며 부산과 동아대학교를 알리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은 최근 차기작 <마약왕>을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산학협력관 주차장과 공과대학 3호관 등에서 촬영했다. 송강호와 배두나, 조정석, 이성민 등이 출연하는 영화 <마약왕>은 1970년대 부산에서 벌어졌던 '한국판 마피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올 여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화제를 모은 영화 <한공주>를 연출했던 이수진 감독의 영화 <우상(偶像)>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에서 촬영했다. 2018년 개봉 예정으로, 한석규와 설경구, 천우희 등이 주연을 맡았다.

▼ 동아대학교 개교 71주년을 맞아 개최한 '함께 뛰자, 동아!'



▲ 동아대학교 개교 71주년을 맞아 개최한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가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30일에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대학과 교양과목 교류, 주민대상 인문학 특강 '눈길'

동아대학교가 인근 대학들과 맺은 협약들이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대학교와 한국해양대·고신대는 지난 학기부터 교양강의를 교차 개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동아대학교는 '인문역량강화(CORE)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협약 취지를 살려 타 대학에 강의를 개설했다. 부산외대에는 '도덕적 사고와 인성함양(신응철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 과목을, 한국해양대와 고신대에는 각각 '석당박물관에서 만나는 명품'(정은우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과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이주영 기초교양대학 교수) 강의를 과건했다.

반대로 기존 동아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던 특수지역학이나 종교, 해양도시 관련 교과목을 개설, 동아대학교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 부산외대의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해양대의 '세계 해양도시의 이해', 고신대의 '영화와 함께 하는 죽음학'이라는 강의가 그것이다.

동아대학교와 부산외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서로의 도서관 소장 자료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아대학교 재학생 약 10%가 부산외대가 위치한 금정구와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교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진해 학생들의 발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동아대학교는 자체 인문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차례씩 모두 8차례 타 대학 교수들을 초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플랫폼 교류의 장'을 열기도 했다.

동아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계명대·한양대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동아대학교는 인문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들과 연계해 강연을 열 계획이다.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이 주최한 '인문학·과학, 서로를 탐하다' 융합 토크콘서트와 봄·가을 인문학 콘서트, '6인 6색 전문가 초청 특강', 명사초청특강은 동아인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동아대학교 도서관이 주최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는 시민들도 참여, '인문학 읽기로 삶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



동아대, 계명대, 한양대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결



지역사회를 향한 문화 혜택 제공

석당박물관과 석당미술관은 주목 받는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석당미술관은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민캠퍼스에서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전을 개최했다. 전시에는 건물이 건립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건물 역사를 담은 도면과 기록, 사진 등이 선보였다. 이를 통해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의 건축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전쟁 당시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주요한 사건과 흥미로운 행사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임시수도정부의 역사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석당박물관에서는 동아대학교 개교 71주년 기념 특별전 <금조충-금동관을 쓴 여인, 황금새와 함께 묻히다>를 2017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개최했다. 박물관 지정된 6건 40점의 유물을 포함한 총 110여점 등 신라시대 최고의 금속공예품이 공개됐다.

음악학과는 동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합창 정기연주회, 동아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을 연이어 열며 동아인의 재능을 펼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또 아동학과 학생들은 부산지역 12곳 어린이 집과 유치원 아동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동극발표회를 열어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학생들이 체득한 '공동체 의식'

동아대학교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자전거로 제주도를 중주하는가 하면 템플스테이에 참가, 공동체 의식을 길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힘썼다. 이외에도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영·호남 4개 대학(동아·영남·원광·조선대) 나눔 봉사단 활동으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봉사, 광안리 차 없는 거리에서의 공연 및 전시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학생 영어·수학 멘토링 활동 등을 펼치기도 했다.



동아대-경남 거창군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동아의 미래 비약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다

2017학년도 초 '깨우고 함께하는 대학, BEYOND 동아'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동아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아의 미래를 착실히 그려가고 있다. 올 초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인 'Quantum Leap 2024+' 추진 상황을 중간점검, 성과를 공유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코딩'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동아대학교의 이러한 교육혁신과 사회 기여 노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링크플러스사업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인문역량강화사업(CORE)과 대학특성화사업(CK-1) A등급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증명되고 있다.

Quantum Leap 2024+ 성과점검 발표회

지난 11월 9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인 'Quantum Leap 2024+(퀀텀 리프 2024 플러스)' 중간 성과점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육혁신원과 교무처, 기초교양대학, 학생·취업지원처, 입학관리처,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건설관리본부, 창업지원단, 기획처 등 교내 각 부처의 실행과제 추진 현황보고와 발전계획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각 실행과제는 미래형 학사구조 및 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과 우수 학생 유치, 교양교육 혁신, 전공교육 특성화, 지역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수업 혁신, 글로벌 도전 역량 강화, 진로설계 및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 창업·기술 이전 활성화, 재정 건전성 확보, 소통채널 다양화,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규 교학부총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작은 실행들이 한 데 모여 대학 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중간 성과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대학 발전계획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다.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오르다

동아대학교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통일교육센터(센터장 한석정 총장)와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윤은기 교수), 링크플러스사업단(단장 한승호 교수), 인공지능·로보틱스 연구실 등이 각각 주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워크숍과 학술대회는 교내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는 융합형 인공지능프로그램 활용전문가 양성사업을 실시했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부산본부가 동아대학교에 들어설 예정이다.



QUANTUM LEAP 2024+



부 재정지원 사업 '우수' 평가 잇따라

대학발전계획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온 동아대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이하 생명산업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특성화사업(CK-1) 3차년도 평가 결과 동남권 비공학계열 11개 사업단 중 1위로 A등급을 받았다. 생명산업사업단에 참여하는 분자유전공학과와 응용생물공학과는 동남권 유일의 생명산업 분야 특성화 학과다. 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 코어)도 한국연구재단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코어사업은 인문학을 보호·육성하고 창의인문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 19개 대학(수도권 8개, 비수도권 11개)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산학협력 EXPO'에 '2017 LINC+ 페스타별'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동아대 교수들, 주목받는 연구결과로 성과 거둬

동아대 교수들은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용 신소재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반도체 물질인 텔루륨화아연(ZnTe) 나노선의 육각형 원자배열과 밴드갭 값을 최초로 밝혀냈다. 김 교수팀의 논문은 나노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7월호에 게재됐다. 텔루륨화아연은 태양전지, 광센서, 발광체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된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김 교수는 "교내 연구 인프라 만을 이용해 얻은 독자적인 연구결과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큰 결실"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의예과 교수 연구팀은 노화연구 분야 상위 5% 학술지 '에이징 셀(Aging Cell)'에 논문을 게재했다. 윤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의 핵심은 세포노화의 핵심적 인자로 알려진 항암단백질 p53에 의한 세포노화 유도기전

규명이다.

고형중 의예과 교수 연구팀은 유전학 분야 국제적 학술지 '플로스 제네틱스(PLOS Genetics)'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의 주 내용은 퇴행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과 관련한 분자기전 규명이다. 고 교수는 "향후 새로운 치료물 개발에 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킨슨병 외에 다양한 신경질환 모델에도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연구자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최고은 연구교수가 우리나라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선정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이름을 올렸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10점 이상의 학술지 중 바이오관련 논문이나 분야별 상위 5% 저널 중 전문가 추천을 받은 바이오관련 논문, 피인용 횟수가 높은 바이오관련 논문의 저자 등 한국 과학자들을 알리고 있다. 서정화 신소재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신소재과학 분야 SCIE 등재지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2017년 10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차세대 유기 트랜지스터는 RFID(신용카드 등에 부착하는 무선 데이터 송신장치) 및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핵심 전자소자다. 이 연구결과로 저비용, 쉬운 공정으로 차세대 응용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 서 교수는 "학과와 학교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 동아인들의 힘찬 도약

비육사 출신 첫 특전사령관(남영신 장군)을 배출한 동아대학교 제117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ROTC)이 육군 교육사령부로부터 2017년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학군단은 하계 입영훈련에서 전투기량 우수학군단 표창도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1961년 창설된 초기 전국 16개 학군단 중 하나인 동아대학교 학군단은 현재까지 장교 4,132명을 배출했으며 △전국 최우수 학군단 표창 9회 △교육사업 우수 11회 △하계 입영훈련 전국 1위 8회 △입관성적 1위 3회 등 명문 학군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발돋움과 함께 교수들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도 두드러졌다. 교수들의 권위 있는 수상 소식이 대거 이어졌으며 저명한 석학을 석좌교수로 초빙해 기대를 모았는데, 건축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승효상 건축가와 제정부 전 법제처장, 유동훈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동아대학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하형주 예술체육대학장은 제60회 부산시 문화상 체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57년 제정된 부산시 문화상은 매년 부산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문화 발전에 공이 큰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성호 건축학과 교수와 박현태 건강관리학과 교수는 각각 장관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2017 건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9월 6일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지역 및 국가 건축정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초·중고 청소년 대상의 건축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를 국내 최초로 부산광역시에 정착·운영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 교수는 치매 조기 예방을 위한 치료적 운동중재방법 연구 및 건강 증진 사업 수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치매극복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형 노쇠코hort 구축 및 중재사업' 연구에 참여, 노인 건강을 위한 운동 중재 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01 개교 71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4명 선정

지난 10월 31일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열린 개교 71주년 기념식(2017. 10. 31)에서 조흥래 삼흥기업 대표, 이상봉 LG전자 사장(에너지사업센터장), 이호열 신부, 박희석 독일 본(Bonn)대학 교수가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했다.

1976년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흥래 대표는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PRO-SPECS)’ 브랜드 창설을 주도하며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신발 산업 생산과 수출, 고용 창출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30년간 LG전자에 재직하며 생산기술원장,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 에너지사업센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이상봉 사장은 기계공학과 81학번이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가전과 모바일폰, LCD 등 혁신적인 생산기술 R&D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이호열 신부는 금속공학과 77학번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등에서 봉사활동을 16년 째 이어오고 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기술학교, 기숙사, 농사 및 초등교육, 의료사업, 학교보건,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린이 교육 및 의료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해외봉사 국무총리상, 이태석 봉사상을 수상하며 모교의 명예를 빛냈다.

박희석 교수는 동아대에서 독어독문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독일로 건너가 에르푸르트대학(University of Erfurt) 동아시아역사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을 지낸 후 2013년부터 본(Bonn) 대학교 일본·한국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독일 내 한국학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02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명예언론학박사
학위 수여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2017. 9. 26)에 한석정 총장과 신태갑 대학원장, 동아대학교 명예박사회 회장인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용우 국민일보 초대회장, 김영일 전 한국ABC협회장, 파이낸셜뉴스 임직원, 전 회장의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법학과 68학번, 명예법학사)이 명예언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전 회장은 1988년 국민일보 창간 당시 경력간부로 입사해 2000년까지 부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민일보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일간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이후 2002년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를 인수하며 언론 경영자의 길을 걷게 된 전 회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간 위기에 직면해 있던 언론사를 1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언론사로 탈바꿈시켰다.

또 2012년에는 중앙일간지로서는 처음으로 지국이 아닌 자회사 ‘부산파이낸셜뉴스’를 창간하며 지역 언론계에 뿌리내렸다. 부산파이낸셜뉴스는 부산글로벌금융포럼과 글로벌부산관광포럼을 연례 국제행사로 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가족 찾기 캠페인’, ‘장기실종아동, 그들은 어디에’, ‘사법피해자, 공권력에 무너진 삶’ 등 반향을 일으키는 취재 기획물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동아대는 “전 회장이 오랜 언론사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 언론사를 이끄는 사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도를 견고 있다”며 “깊이 있는 보도와 금융·산업·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유를 밝혔다.





03 첫 비육사 특전사령관 임명 동아대학교 출신 남영신

동아대학교 동문이 비(非)육사 출신 최초로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군 장성급 인사에서 동아대학교 제117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ROTC) 23기 출신인 남영신(54) 제3사단장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신임 특수전사령관이 됐다. 이는 동아대학교 출신 최초의 3성 장군이자, 1969년 특수전사령부 창설 이래 첫 비육사 출신 사령관이다. 이전까지 특수전사령관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교육학과 81학번인 남영신 장군은 1985년 소위로 임관, 32년간 △제7공수여단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 등 주요 참모와 지휘관을 역임했다.

남 장군이 새로 부임하는 특수전사령부는 혹독한 훈련과 강한 군기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 아래 대침투작전, 대테러대비, UN평화유지군, 재해·재난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을 하는 부대로, 특수전사령관은 군 핵심 보직으로 평가받는다.

04 저명한 석학들이 오다

동아대학교가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석학을 석좌교수로 초빙해 교과목 강의와 특별강의, 해당 학문 분야 연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학기에는 건축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승효상(65) 건축가가 건축학과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동아대학교는 승효상 건축가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재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아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범제처장을 지낸 제정부 씨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유 전 차관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좌교수에 각각 선임, 2017년 2학기부터 강단에 서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청렴결백으로 법학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도 석좌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05 인문역량강화사업단 2017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이 지난 12월 14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교육기부박람회' 행사장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

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은 교육부 주요정책사업인 중등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인문독서를 통한 진로탐색'과 '일상에서 발견하는 문학', '올바른 SNS 글쓰기', '부산, 근대와 만나다' 등 프로그램으로 모두 18개 학교 학생 86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이 인문학을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특히 부산·경남 농어촌 지역 청소년 및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탐색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배경지식 습득과 탐방 기회를 제공해 지역을 이해하는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앞으로도 기존의 인문학 콘서트와 강연뿐만 아니라 '동아 주니어 인문스쿨'과 '시니어 인문스쿨'을 기획, 학교와 문화원, 대학,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06 한석정 총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이사 선임

한석정 총장이 지난 10월 16일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이사로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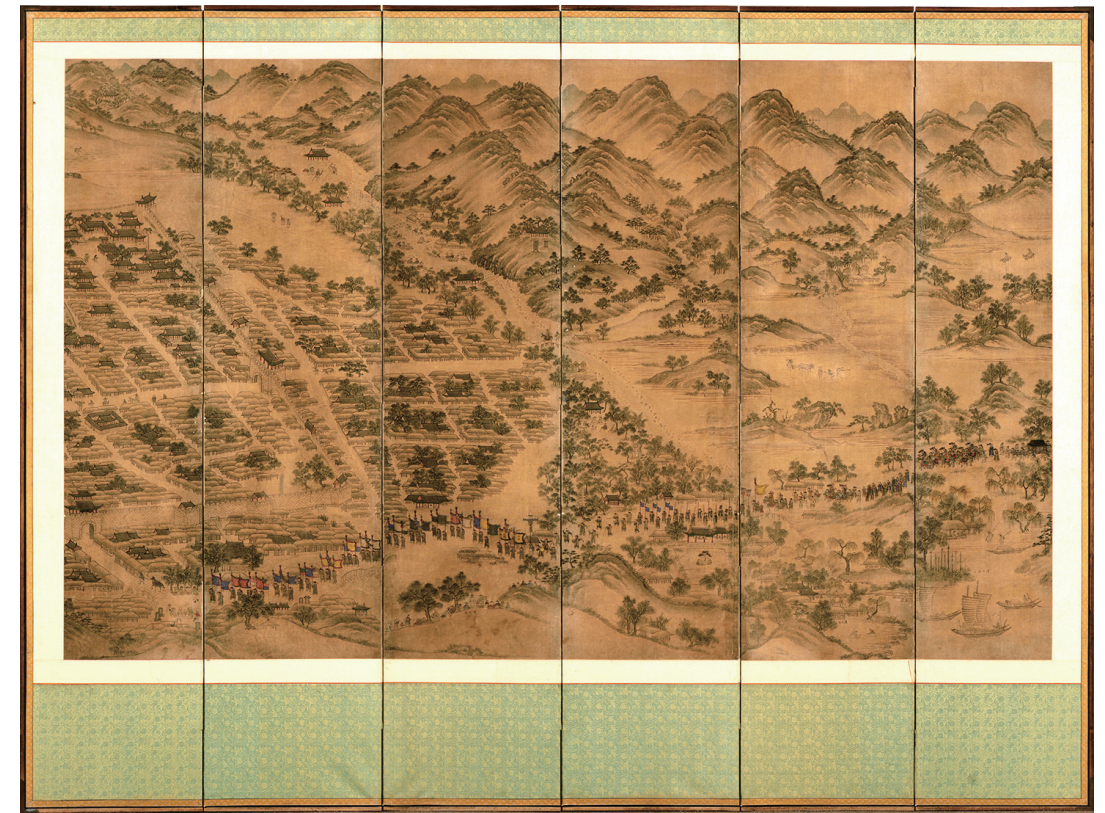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해 스포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0년 6월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대학스포츠 관장 기관으로 현재 전국 94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07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미국 3개 도시 순방 공연

태권도학과 태권도시범단이 지난 7월 24일 출국해 미국 3개 도시에서 순방공연을 마치고 8월 16일에 귀국했다.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미국 현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이승형, 김계경, 유돈영, 문정훈, 김정환 등 다섯 명 동문들의 초청에 의해 성사됐다. 이들 동문은 자신들의 태권도장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시범단에게 총 8,000달러(한화 약 900만 원)를 기부하며 모교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에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최정상급 공연이었으며 관객들이 큰 호응을 보냈다'고 잇따라 보도했고 실제 미네아폴리스 공연에는 1천여 명의 관객이, 포틀랜드에는 800여 명의 관객이 몰려 미국 내 태권도의 인기를 새삼 실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08 '해수도 병풍'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석당박물관
 소장품: 국보 2점(개국원종공신녹권, 동궐도), 보물(14건 54점),
 중요민속문화재 4점(전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기구 등),
 등록문화재 2점(부산전차,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등 27,584점.
 이용안내: 동아대 부민캠퍼스 위치, 화요일~일요일 09:30 ~ 17:00, 무료

석당박물관이 소장한 '해수도 병풍'이 지난 12월 7일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됐다. 해수도 병풍은 황해도 감영소재지 해주성 일대의 경관을 그린 실경도로 산수화, 풍속화, 행사기록화, 회화식 지도 등 여러 요소가 한 화면에 조합된 6폭의 병풍 그림이다. 고종 4년(1867) 직후에 제작된 길로 파악된 이 작품은 18세기 이후 산수화와 기록화 발달에 힘입어 유행한 회화식 지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황해도 감영을 그린 지도로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어 의미가 큰 작품이다. 해당 그림은 회화 수준이 높고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표현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화원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또 해주가 황해도 감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비대령화원의 화사군관(조선 후기 지방 감영에 파견되어 공식적인 도화업무를 수행한 규장각 소속의 화원)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도 추정된다.

앞서 8월 11일에는 조선시대에 추앙됐던 5명의 성현이 그려져 있는 명현초상 5점이 최근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일괄 지정됐다. 한편 석당박물관은 이번 지정을 포함해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24건, 국보 2건, 보물 14건, 등록문화재 2건 등을 소장하게 됐다. 명현초상 5점은 공자와 주자, 기자, 제갈량, 우암 송시열의 초상으로 간단한 제문이 동일한 서체로 적혀 있다. 제문은 기자 초상화 뒷면에 '은진후송래회근서(恩津後宋來熙謹書)'라는 목서명이 적혀 있어 송시열의 후손인 송래희(1791-1867)가 5점 모두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09 황기식 교수 대통령표창 수상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국제학과 교수가 통일교육 활동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황 교수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통일 교육에 앞장서고, 통일 교육 접근방식이나 교육 방법을 고민해왔다.

또 언론 칼럼을 통해 꾸준히 통일영재교육 분야 육성, 정치학·북한학과 구분된 통일교육 전공 개발, 더 신나는 통일 교육, 공감하는 분단 역사 교육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고려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런던대 정치학 석사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와 지역통합론 등을 연구하고 있고, 국회홍보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10 하형주 교수 제60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

하형주 예술체육대학장이 지난 10월 30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0회 부산시 문화상에서 체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957년 제정된 부산시 문화상은 매년 부산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문화 발전에 공이 큰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인문과학과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 대중예술, 체육 등 6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결정했다. 하 교수는 부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및 운영위원, 부산스포츠발전위원회 위원, 제14회 부산아시아게임 집행위원, 대한민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회 회장,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50여 편의 논문과 10여 권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스포츠과학대학장에 이어 현재 예술체육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11 이성호 교수 '2017 건축의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이성호 건축학과 교수가 한국건축단체연합이 주최하는 '2017 건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9월 6일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공동으로 열린 '2017년 건축의 날'과 '제26차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서 열렸다.

UIA는 현재 전 세계 124개국 130만 건축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 유일의 건축연합기구이다. 세계건축대회가 열림으로써 국내에 전 세계 건축인이 모여든 가운데 건축의 날 시상식이 진행돼 상의 의미가 더욱 뜻 깊었다. 이 교수는 건축가이자 교육자로서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균형발전·홍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한국건축가협회 소속 건축가로서 국내 우수 건축 작품을 디자인·감리했으며, 지역 및 국가 건축정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초중고 청소년 대상의 건축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를 국내 최초로 부산광역시에 정착·운영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2007·2008년 대구건축작가상과 2012·2015년 부산국제건축대전 베스트어워드, 2013년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 부문 금상, 2016년 올해의 건축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2 박현태 교수 치매극복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박현태 건강관리학과 교수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치매 조기예방을 위한 치료적 운동중재방법 연구 및 건강 증진 사업 수행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본 국가전문의료연구기관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운동기능부활 연구실장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연구기관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건강장수 지능 탐색팀 선임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와 일본체육대학 종합연구소 객원 연구원 등을 맡고 있다.



13 전자공학과 학생들 국내 로봇대회 잇달아 석권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국내에서 열린 각종 로봇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지난 9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종합 로봇경진대회인 2017 국제로봇콘테스트&R-BIZ챌린지에서 전자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ECOM'팀(김창현, 김지용, 안현우, 박성우, 장우정, 채윤정)이 '지능형 SoC 로봇 워'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공학과 대학원생과 학생이 연합한 '아이 언하트'팀(길기중, 박민혜, 조성희, 홍정민)은 'R-BIZ 챌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 은상을 받았다.

전자공학과 인공지능 로봇틱스 연구실 최재원·박건수 석사과정생과, 최지수·이희영(전자공학과 4), 김은지·노유정·김광준(전자공학과 3) 학생 팀은 팔에 웨어러블(wearable) 밴드를 착용, IMU 센서와 Flex 센서로 사람 팔의 움직임을 감지한 로봇이 따라 움직이고, 리모컨으로 로봇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WCVR'을 출품했다.



14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황용준(체육학과 3) 학생이 지난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주관한 '2017년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받았다. 스포츠 관련 시설과 용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스포츠 융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이 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최종 심사까지 대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황 학생이 대표로 활약한 '이즈크' 팀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맞춤형 스포츠 깔창 아이디어를 출품,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차지했다.

기계공학과 4학년으로 구성된 학생팀(조연원, 이주영, 김시렬)이 지난 11월 9일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7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특허출원 및 사업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회로, '자유부문'과 '공모부문'을 나눠 진행됐다. 학생팀은 자석의 척력을 파이프 안에 넣은 후 압력을 가해 척력을 약하게 만들어 부딪히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척력을 이용한 안전벨트'를 출품했다. 유체압력이 영구자석 사이의 척력보다 클 경우 차단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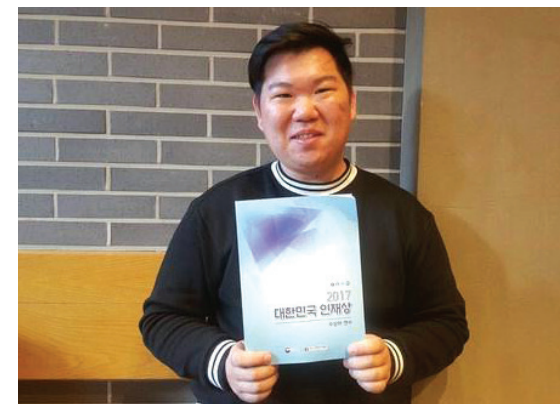


15 이영훈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국제관광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영훈 학생이 지난 12월 12일에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부모 역할을 대신 해준 '비올라나 수녀'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이 학생은 지역사회 발전 공헌을 목표로 '새날투어 여행사'를 설립, 전통시장 투어 등 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2013년 'KT올레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해외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교류 능력을 키운 이 학생은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 사후활동을 총괄하면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왔다.



16 패션명문 동아를 각인하다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제6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에서 대거 수상했다. 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 박지현 학생을 비롯해 우수상 임훈, 장려상 김설·박선영 학생 등이 '패션명문 동아'의 위상을 빛낸 것.

대상을 받은 박지현 학생의 작품 'Convergence(컨버전스)'는 레이스 스와치와 니트 원단, 실을 이용해 새로운 소재를 선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7회 한중일 섬유산업협력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선보이기도 했다.

김가희 학생은 '2017 전국 대학생 니트 패션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18개 대학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는 모두 9명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발휘했다.





17 신진건축사 최우수상 한국농촌건축 대상 수상



이기철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작품 '멋진할아버지집'이 2017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과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준공 부문 '대상'을 받았다. '멋진할아버지집'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전원주택으로, 토속적 한국건축 요소를 현대적인 공간과 재료에 합리적으로 접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체성 찾기'와 '한국 토속건축의 현대화 과정 밟기'라는 주제를 담은 이 작품은 '불편하지 않은 시골 촌집'으로 탄생한 것. 심사위원들은 '멋진할아버지집'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시공자와의 소통을 통한 섬세한 시공, 대나무로 만든 새로운 자재를 활용한 입면(정면이나 측면에서 수평으로 본 모양)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이 동문은 건축공학과 96학번으로, 현재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건축디자인 및 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18 김현엽 동문, 아트부산 신진작가 지원전 대상 수상

동아대학교 출신 김현엽 작가가 부산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부산'이 주최한 신진작가 지원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조각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환시인간'이라는 작품으로 '제1회 프로젝트 아트부산 프라이즈' 대상을 수상, 상금 1,000만 원과 '아트부산 2018' 특별전 참여 및 개인전 기회를 얻었다. 이번 공모전에 김 작가는 '폭력만화-엑스포'와 '환시인간' 시리즈를 출품했다. 피규어와 공산품 등 기존 오브제에 다른 오브제를 붙여 새로운 형태를 만든 작품으로, 인간의 폭력(전쟁)을 풍자하는 의미와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포장되는 모습을 각각 표현했다.



19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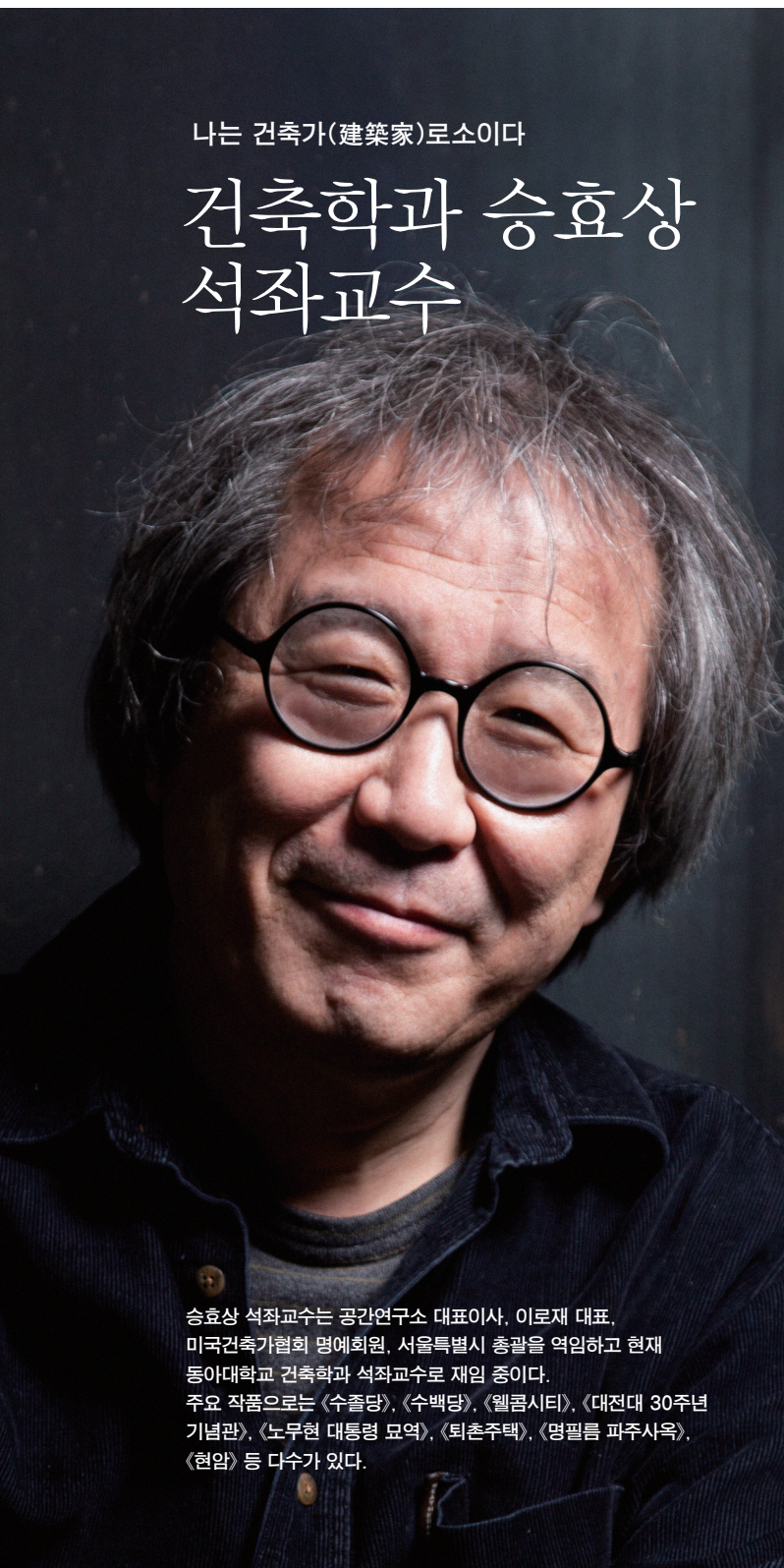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중앙동아리 '알파'가 지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군에서 진행된 횡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알파는 지난해 강진청자배에 이어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해 명실상부 대학클럽야구 최강팀의 명성을 굳건히 했다. 동아대와 충남대의 결승전은 횡성군 전역에 비가 내려 두 차례나 경기가 지연되는 '수중전'으로 치러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가 선수들은 열정을 불사르며 경기를 끝마쳤고, 결과는 13대 7로 동아대 알파의 승리. 동아대 김태환(건축공학과 4) 학생은 대회 MVP로 선정됐고 최우수타자상 또한 동아대 박상욱(기계공학과 1) 학생이 차지했다. 김태환 학생은 "팀을 승리로 이끌어준 팀원 모두가 주인공이다. 믿고 따라온 후배들과 많은 도움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상욱 학생은 "전국대회 참가가 처음이라 실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습하던 대로 편하게 하라는 선배들의 말이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다.

20 해양수산부장관배 대회 1위

드래곤보트 동아리가 '제4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아라뱃길 국제드래곤보트대회'에서 국내부 혼성 500m 1위를 차지했다.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최로 지난 12월 14일부터 이틀간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개최됐다. 동아대 드래곤보트 동아리가 최근 열린 '제4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아라뱃길 국제드래곤보트대회'에서 국내부 혼성 500m 1위를 차지했다.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최로 지난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개최됐다.



나는 건축가(建築家)로 소이다
건축학과 승효상 석좌교수



승효상 석좌교수는 공간연구소 대표이사, 이로재 대표,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 서울특별시 총괄을 역임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수출당>, <수백당>, <웰컴시티>,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노무현 대통령 묘역>, <퇴촌주택>, <명필름 파주사옥>, <현암> 등 다수가 있다.

건축가는 '의식주' 중 '주'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건축가는 단순히 건축물을 설계하는 직업이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공학자이자,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두루 지니고 있는 인문학자,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내외의 유수(有數) 건물들을 계획, 설계했으며 감독을 해온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승효상 건축가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이에 대해 승효상 석좌교수는 "부산에서 산 기간은 짧지만, 어딜 가도 '부산 사람'이라고 말한다. 부산의 바다풍광이 삶에 늘 위로와 안식을 준다"며 "동아대에 부임함으로써 부산과 다시 인연을 맺게 돼 감회가 새롭고, 대학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은 승효상 교수와의 일문일답.

동아대와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으며, 부산출신으로서 동아대에 부임한 느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아대는 제가 경남고등학교를 다닐 시절 바로 곁에 있어 이웃과 같은 학교였습니다. 부산의 지역성이나 역사성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오던 차에, 몇 년 전부터 동아대로부터 권유를 받고 숙고하다가 총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를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고향을 위해 봉사할 때가 되었다고도 여기던 참인데, 조그만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영광입니다.

교수님이 설계하신 수출당, 퇴촌주택을 보면 기존의 집이 주는 안락함에 반하는 철학이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교수님의 건축 철학인 '빈자의 미학'을 구현한 작품입니다. '빈자의 미학'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저는 부산에서 피난민 촌에서 자랐지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지금, 오히려 공동체는 붕괴되고 사회는 갈등에 싸여 있는 때에 서로 도우며 스스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깁니다. 빈자의 미학은 '가난한 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난하고자 하는 이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물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된 지금, 오히려 공동체는 붕괴되고 사회는 갈등에 싸여 있는 때에 서로 도우며 스스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깁니다."

오래된 것들에 애뜻함을 품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옛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한국만의 옛것은 무엇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의를 하신다면요?

글쎄요. 굳이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리움' 아닐까요? 선비들에게는 절제와 극기를 통한 도에 대한 그리움이며, 일반 백성에게는 해학을 통한 달관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때로는 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40년이 넘게 건축 한 길을 걸으셨는데요, 흔히들 선택의 이면에는 '버림'이 있다고들 합니다. 교수님이 건축가가 아니셨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성직자였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마음을 굳혔지만 집안의 반대로 뜻을 못 이루었지요. 그런데 건축이 성직이라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과 성직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요즘 흥미를 가지는 외국 건축가가 있으신지요?

코르뷔지에(Le Corbusier) 같은 시대를 바꾼 위대한 건축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요즘은 레베렌츠(Sigurd Lewerentz)나 스페르 뢰(Sverre Fehn), 피키오니스(Dimitris Pikionis), 메클리(Peter Märkli) 같은 본질만을

파는 건축가를 더 좋아합니다.

한 시대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축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내는 건축가로서 교수님의 의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의 명작이 만들어졌을 때 건축가의 나이가 6·70세가량이었지요. 이제 저도 건축을 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펜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근 동아대는 인문학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난 학기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세 차례 강연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문학은 무엇일까요?'

인문학을 배우는 건 우리의 선함과 진실,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우리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지요.

끝으로 동아대 건축학도 또는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경계 안을 관찰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내어 놓는 자세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그 한 마디
가슴이 기억한
머리는 잊었지만

사랑병 파트너 이건일 학생

이건일 학생(간호학과 4)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나간 장애인 시설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후 봉사에 깊은 뜻을 두게 되고, 동아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4년 후 치매파트너 활동으로 2017년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 부산치매센터 대학생 치매 파트너 3기 · 4기 리더단 대표(350시간 활동)
- '2017년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개인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산광역시치매센터는 부산시가 동아대병원에 위탁한 부산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유일한 시설이다. 이곳에서 이건일 학생은 대학생 치매 파트너 3기와 리더단 4기 대표 활동을 하며 '치매인식개선 캠페인'과 '뇌청춘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다.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서는 온천천, 공원, 지하철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부스를 설치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시켰다. 당시 치매환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는 방명록을 한 시민에게 권하자 "치매환자를 응원해서 뭐하게?"라는 말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다고. 이를 계기로 더욱 치매환자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어르신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온천천에서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치매극복 걷기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슴을 울린 '고맙다'

'뇌 청춘' 프로젝트는 대학생 파트너 자원봉사자 2명과 요양보호사 1명이 1조가 되어 어르신 댁을 주2회 6주간 방문, 개인 맞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중증치매로의 진입을 지연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부산지역본부의 특화사업이다. 이건일 학생은 '뇌청춘 프로젝트'를 통해 22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다. 이 어르신들을 만나고 나서야 더욱 자신의 신념과 앞으로의 길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매번을 찾아가 케어를 해드려도 어르신들은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고요.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을 뵙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며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건넌 '고맙다'는 말에, 건일 학생은 "가슴 한 쪽이 멍멍해졌다"고 했다. 치매파트너로 활동하며 치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기도 했다. "흔히들 치매라고 하면 한 가지 종류의 질환을 가리키는 것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며 트레이닝으로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사랑병'이다

복지제도가 발달한 네덜란드에 방문? 호그벡 마을은 네덜란드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의 한 형태인데 슈퍼마켓, 우체국, 영화관 등 있는 실제 마을형태로 병원을 꾸며서 환자가 일반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병원이다. 건일 학생은 "기존의 수직적인 병원건물을 수평으로 넓은 공간으로 변환시켰는데 환자가 원하는 바를 인간답게 누



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기에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진심어린 곳인 것 같습니다."라며 한국에도 호그벡 마을이 있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게 희망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건일 학생의 치매파트너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치매파트너로서의 건일 학생이 '치매'라는 용어에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치매의 한자 '癡'와 '呆'은 둘 다 '어리석다'는 뜻의 좋지 않은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꾸려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파트너 사이에서는 치매를 '사랑병'으로 부른다고 한다.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0명당 약 9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은 해마다 증가해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그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건일 학생이 전하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아도, 치매가 있어도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무대 나의 인생

배우 박지일 (회계학과 00)

연극은 배고픔이 아님 애달픔이다. 먹지 못하는 것은 배고픔이지, 연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못 되는 것은 애달픔이다. 그래서 연극은 배우에게 애뜻하고 애달프다. 여타 예술이 시대의 빠른 흐름과 손때를 타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연극만큼은 고대의 원형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유는, 연극 자체가 순수예술이기 때문이다. 그 순수한 열정에 젊은 시절을 모조리 불살랐고, 그 열정을 30년을 간직하며 여전히 무대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는 배우가 있다. 바로 박지일 배우(회계학과 00)이다.

동아대 극예술연구회 통해 연극에 빠져

지난 2017년, 동아대 극예술연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극예술연구회 출신으로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래요 50주년이나 됐더라고. 홈커밍 데이를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한동안 그 시절 추억에 사로잡혀 지냈어요. 결국 공연 중이라 참석은 못했죠. 정말 아쉬웠어요. 동아대 극예술연구회는 제 배우인생의 뿌리이자 출발점이지요. 40년여 전 학교 입학하고 우연히 신입생 환영 공연을 보러갔다가 우

리대학 연극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교시절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드라마 성우를 해봤는데, 연극무대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주저 없이 극회 동아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점점 연극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아니 어쩌면 그곳의 사람들에게 빠져들었던 거죠.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출신이십니다. 선생님께 동아대학교는 어떤 의미인지요?

격동의 20대를 보낸 곳이지요.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입사했는데, 6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나와 입시준비를 했어요. 실업반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입시공부를 한 일이 없었고 불과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동아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처음에는 학교에 정을 붙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극회 들어가고는 그런 생각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극회 친구. 선배들에 빠지고 연극에 빠져든 거죠. 그러다 '정신 차리자' 하고는 2학년부턴 학교 공인회계사 연구반에 들어가서 주목 받는 고시생 생활도 해봤죠. 당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원은 무척 엄격했어요. 그런데 연극무대의 유혹에서 벗어나 질 못해서 담 타넘어 연극연습 다니다가 쫓겨났어요. 연극반 선배들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고, 하하. 쫓긴 인간들. 가난한 집 장남으로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연극 또는 배우에 대한 나의 욕망이 충돌하며,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위에 서있는 느낌으로 살던 시절이었죠.

연극을 처음 접했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아대 극예술연구회 시절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셨으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정통연극을 처음 본 건 고교시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본 <홍당무>라는 작품이었어요. 서울서 내려온 극단 산울림의 연극이었는데 그 당시 연극계의 스타였던 손숙, 김영애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었죠. 극장을 가득 메운 배우들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죠. 나중엔 숨을 쉬기가 좀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심장이 뛰고, 온몸이 상기 돼서, 내가 완전히 홍당무가 됐었지. 하하. 그런데 십오 년쯤 후에 산울림 소극



배우 박지일

무대작품

<죄와 벌>, <서안화차>, <바다와 양산>, <도살장의 시간>, <대학살의 신>, <당통의 죽음>, <오편스>를 비롯해 뮤지컬 <맘마미아>, <심야식당> 등 60여편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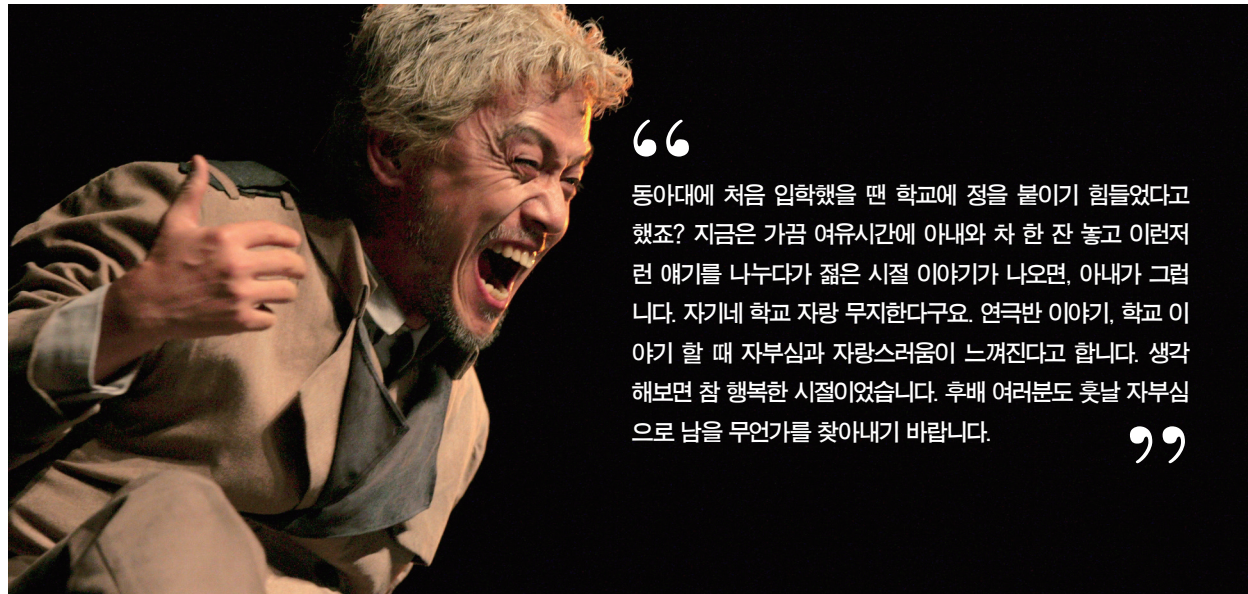
<금홍아 금홍아>, <약속>, <취화선>, <미인도>, <집으로 가는 길>, <그물>, <돌아와요 부산항에>, <남한산성> 등 다수.

방송

<토지>, <대물>, <황금의제국>, <정도전>, <징비록>, <푸른바다의전설>, <듀얼>, <병원선>, <돈꽃> 등

수상경력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우수연극 연기상, 서울공연예술제 남자연기상, 동아연극상 남자 연기상



“ 동아대에 처음 입학했을 땐 학교에 정을 붙이기 힘들었다고 했죠? 지금은 가끔 여유시간에 아내와 차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아내가 그렇습니다. 자기네 학교 자랑 무지한다구요. 연극반 이야기, 학교 이야기 할 때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훗날 자부심으로 남을 무언가를 찾아내기 바랍니다. ”

장에서 서울무대에 데뷔했으니 연극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죠.

본격적인 배우로서의 꿈을 꾸던 건 극회 시절 <에쿠우스>라는 작품을 하면서였어요. 그 무렵 다시 마음을 잡고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하. 선배로부터 공연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대본을 보고는 훌쩍 빠져버렸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부산 대학연극제에도 출품이 되었는데 대학가의 화제가 될 정도로 충격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어요. 소년이 안개 낀 새벽에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극도의 흥분과 쾌감을 느꼈어요. 연극의 블랙홀에 빠지고 말았죠. 몸을 사리지 않는 무식한 연기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그 후 오랫동안 나의 지병이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면서, 이브의 사과를 먹었다고나 할까. 하하 그렇게 연극배우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체험을 하고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었죠. 이후 저는 재학 중 총 9편의 연극에 출연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어요.

연극과 현실사이에서 갈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극을 선택하게 된 그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나요?

운명이었던 거 같아요. 연극과 현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 재능에 확신이 없어서 수없이 갈등했죠. 이 길을 선택하면서 치러야 했던 젊은 날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주저앉았죠. 하지만 연극을 하지 않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불행했습니다. 92년 연극을 완전히 포기하고 취직이 돼서 서울 연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연출가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극단 산울림에서 준비하고 있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에 출연해 달라는 거였어요. 작은 역할라도 하나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마침 서울 가는 길에 들러서 거절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대의 연극계 스타들이 출연하는 산울림 소극장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본이나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간단한 오디션 같은 걸 봤는데, 즉석에서 주인공 '라스폴리니코프'를 제안 받았습니다. 2시간 반짜리 대사연극에 부산 토박이 배우가 캐스팅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 표준말을 외국어 공부하듯이 습득한 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2의 연극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직장도 버리고 부산집에 내려와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연극을 반대해왔던 아버지와는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

고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더 이상 갈등도 접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생각하고는 그 후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죠.

냉철하고 이성적인 엘리트의 마스크를 가진 배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평소 원래 모습이신가요? 원래 성격이 궁금합니다.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소심하기도 하고, 아무튼 차갑기보다는 부드럽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죠. 배우는 일상에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저한테는 없는 거칠고 강인한 모습, 강한 카리스마, 광기 이런 걸 무대에서 표현할 때 희열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미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역할이 잘 오지 않네요. 남들을 웃기고 싶은데 말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앞에서 각종 코미디를 선보이죠. 하하

연기 인생 한 길 30년이 넘게 견고 계십니다. 그간 기억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서울무대 데뷔 작품인 <죄와 벌>. 운 좋게도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을 받으면서 연극계에 이름을 알렸죠. 아까 나를 냉철하고 도회적인 엘리트 이미지를 가진 배우라고 했는데, 내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역할들이었어요. <슬픔의 노래>에서 박운형은 낯선 이국땅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5.18 광주 계엄군 출신의 연극배우예요. 광주에서 겪은 끔찍한 살인의 기억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가진 인물이죠.

그 상처 때문에 무대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경험을 반복하는 인물. 스스로 천형을 받은 자였죠. 이 작품으로 지적 카리스마의 강렬한 배우란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서안화차>는 초연 후 각종 연극상을 받으면서 10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공연됐는데, 이 작품의 '상근' 역시 국적도 성적 정체성도 희미한 가장 소외된 자죠.

이때쯤 박지일의 연기는 '얼음위의 불꽃'이란 멋진 평을 들었어요. 내 연극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작품이죠. 그



리고 숨은 장난기를 표출하면서 너무 즐겁게 공연했던 <맘마미아>.

2000년대부터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방송, 영화등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장르, 가볍고 재미있는 역할들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뭐든 죽기 살기로 할 때 보다, 힘 빼고 해야 더 잘하는 법이잖아요? 하하. 욕심 부리지 않고 즐기면서 해요.

끝으로 동아대학교의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선배님의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우로서 작품을 하나씩 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이고 자기성찰도 계속 했습니다. 늘 경쟁에만 내몰려 지내 온 세대에게 기성세대로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 조금씩 발전하고 성취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을 알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늘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어디선가 문득 만나길 바랍니다.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아대 학생들,
후배 위한 '붕어빵 장학금' 기부

부산지역 한 대학교 학생들이 겨우내 붕어빵을 판매한 수익금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해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황성주(스포츠지도학과 4), 채승지(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민석(체육학과 4), 정주은(체육학과 3) 등 4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50일 간 '성주네붕어빵'이란 이름으로 승학캠퍼스 일대에서 붕어빵을 판매했다.

동아대 홍보대사 '에그리나'와 체육학과 회장 등으로 활동했던 황성주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붕어빵 장사는 기다리는 손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한 그는 붕어빵 제조 방법을 배우기 위해 40여 곳을 돌아다니며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 결과 '하루에 붕어빵 1,500마리 파는 집'과 '웨이팅이 존재하는 붕어빵 가게' 등 유명세를 얻을 수 있었다.

'붕어빵을 좋아해서' 붕어빵 장사를 생각했다고 명쾌한 답을 내놓은 '성주네 붕어빵' 최대 시련은 '수업'과 '노점 단속'이었다. 학생 신분으로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며 서로 수업시간에 맞춰 교대했고, 노점 단속이나 주변 가게들의 견제를 피해 잠시 장사를 중단하기도 했던 것. 결국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주변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장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동아대 음악학과 학생들,
'특별한 공연' 화제

부산지역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이 지역 파출소와 소방서 등을 찾아 직원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공연'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음악학과 고성현과 김여주, 허석, 전해원, 노기민 등 5명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공연을 펼친 곳은 부산 중부소방서 부민 119안전센터와 부산중부경찰서 보수 파출소 등 모두 21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이 주관한 프로젝트가 계기가 돼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작됐으며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당연하게 공연장소가 됐던 것. 이 같은 깜짝 위문공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성현(음악학과 3) 학생은 "겨울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강했다"며 "작은 공연이지만 이를 통해 추위가 조금이라도 녹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공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소 공연에서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는데 특히 그룹 신현희와 김루트의 '오빠야'라는 곡을 자주 선택하고 있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이 많아 여성 보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반응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고인 된 동생 모교에 계속 기부하는
형님 부부 '훈훈'**

24년 전 유명을 달리한 동생 이름으로 동생의 모교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부부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최지훈(64)·문지원(61) 씨 부부는 최근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를 방문, 故최영주(동아대 법학과 94학번) 씨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 문 씨는 “올해 환갑이라 여행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시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동아대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동아대에 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6년 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0만 원에 이어 이번에 또 1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다. 최 씨의 동생 고 최영주 씨는 지난 1994년 동아대 법학과에 입학해 1학기를 마친 후 입대를 기다리던 중, 여름방학을 일주일 남기고 갑작스런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스무 살 차이 나는 이복동생을 자식처럼 키워 대학까지 보냈던 부부는 “동아대에 다니던 시절에 동생 생애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고 기억했다. 고인이 7살 되던 무렵 시집 와 중학생 시절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형수 문 씨는 “도련님의 꿈은 판사가 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일 하며 사는 것이었다”며 “시동생이 꿈을 키운 동아대에 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자고 남편에게 제안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 노상운 교수 4남매
5,000만원 기부**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51기가 지난 29일 동아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한석정 총장을 비롯, 윤성욱 경영대학원장과 원우회장을 맡고 있는 옥기문 (주) 송덕 대표이사, 강득남 (주)동인 대표이사, 박종규 (주)대성종합열처리 대표이사, 임성국 (주)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옥 회장은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우리 대학은 기업인이 나오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대학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토양이 알차지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경영대, 1천만 원 릴레이 기부
신호탄 쏘아**

제1호 기부자 조홍래 (주)삼흥기업 대표와 제2호 윤정기 주원테크(주) 회장에 이은 3, 4호 기부자는 각각 이성우 (주)대일조선·씨텍 회장, 윤재효 (주)세계수출포장 회장이다. 한석정 총장은 “기부 릴레이가 끊임없이 이어져 동아대 경영대학 혁신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영대학의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행사는 학교 동문이나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다우이스트(DAUist, 동아대 경영인)를 길러내기 위한 이른바 ‘다우이스트 기프트’ 프로젝트다. 다우이스트는 자기주도적으로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경영대 교육철학인 ‘다우이즘(DAUism)’을 바탕으로 동아대 경영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이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한석정 총장과 최형림 경영대학장, 황규홍 대외협력처장, 경영대 교수진,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군단 총동문회, 역사관 조성기금 및
장학금 6,000만 원 기부**

동아대 학군단(ROTC) 역사관 조성기금 수여식이 지난 11월 7일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한석정 총장을 비롯해 박수남 학군단 동문회장, 황규홍 대외협력처장, 하승태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당 기금은 ROTC 역사관 건립과 학군후보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 총장은 “학군단 동문회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다”며 “특유의 단결력으로 단기간에 발전기금을 모은 점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학군단의 빛나는 역사를 잘 보존하고, 후배 후보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동문, 학부모님의 뜻이 기금으로 모아졌다”며 “건립될 역사관은 학군단뿐만 아니라 동아대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동아대 교수축구회
후원금 2,500만 원 전달**

동아대학교는 ‘동아대학교 축구부 후원금’ 전달식을 지난 1월 3일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후원금은 동아대 교수축구회(회장 홍영습)가 기부했다. 교수축구회는 2004년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재 1억여 원을 들여 전국 대학교에 만든 것으로 동아대 교수축구회는 현재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전국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동아대 축구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교수축구회 회원 22명이 격려차원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한 총장은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과거 동아대는 ‘축구하면 동아대’였을 정도로 축구가 유명했다”며 “이번 기부행사를 계기로 동아대 축구부가 다시 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아대 출신 김미애 변호사
후배 위한 장학금 쾌척**

법학과 97학번인 김미애 법무법인 한을 대표변호사가 지난 12월 21일 1,000만 원을 기부, 현재까지 대학 발전기금 8,000만 원과 법대 장학금 1,000만 원 등 모두 9,000만 원을 모교에 쾌척했다. '벧속의 불평등이 사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김 변호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인다. 김 변호사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지독료(동아대 고시반 기숙사)에서 무료 숙식한 것이 바탕이 돼 시범시험에 합격했다"며 "모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걸 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9,000만원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해수 조양실업(주) 회장
동아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전해수 조양실업(주) 회장이 지난 8월 29일 전기성 조양실업(주) 사장, 김송은(산업디자인학과 2) 학생, 동아대 관계자 등이 조양실업(주) 회의실(연제구)에 자리한 가운데 김송은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전 회장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답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전은장학금을 계기로 전공 학업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학생은 "개강이 코앞인데 전은장학금이 이번 학기를 성실히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 회장님과 학교 관계자 분들이 신경 써 주신 만큼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우성종합건설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지역 건설기업인 (주)우성종합건설이 지난 11월 23일 동아대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한석정 총장을 비롯, 정한식 (주)우성종합건설 대표와 이영미 (주)우성종합건설 이사, 황규홍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정 대표(농과대 생명자원과학대)와 이 이사(법대)는 (사)동아비즈니스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주)우성종합건설은 부산과 경남 등지에 '우성스마트시티·뷰'를 건설 중이며 마케팅뿐만 아니라 시행·시공까지 하는 '역량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A 49기 졸업생
발전기금 2천만 원 기부**

2016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17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윤성욱 경영대학원장과 정재현 부원장을 비롯한 교수진, 김영구 석사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구 석사동문회장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박일근 졸업생 대표는 "명문 동아대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아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모교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졸업생 일동은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 발전기금 1천만 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회가 지난 9월 29일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9회 총장배 동문골프대회'에서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석정 동아대 총장과 윤성욱 경영대학원장, 강세호 AMP 제44대 동문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강 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선·후배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AMP 동문회는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골프대회 외에도 지난 10월에는 한마음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오는 3월에는 '동문 건강 걷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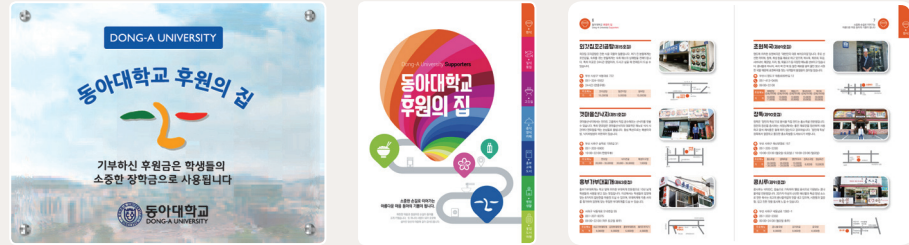
**사회복지대학원 21기 졸업생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 21기 졸업생들이 지난 8월 17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2016학년도 후기 사회복지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한세익 사회복지대학원장과 교수진, 천영희 사회복지대학원 총동문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으로 십시일반 모은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천영희 총동문회장은 "졸업생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 복지 현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곳곳을 누빌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연결하는 동문들은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평생교육원 골프CEO 동문
1천만 원 쾌척**

골프CEO 총동문회가 지난 8월 28일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9회 동아대학교 골프CEO 총동문회장배 및 부산시 아동복지 돕기 자선골프대회'에서 대학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들은 또 이날 멀리건(벌타 면제) 티켓을 판매한 수익금 500만 원을 부산시 아동복지후원회에 기부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석정 총장, 허재택 동아대병원장, 임상택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골프CEO 동문 200여 명이 참가했다. 한 총장은 "모교 발전과 부산시 아동복지 후원을 실천하는 골프대회인 만큼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항상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방법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에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해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명절 때 쌀 · 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에 등재 관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 특별한 행사 등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가입문의	Tel (051)200-6012~3 Fax (051)200-6015 E-mail jeonkoko@dau.ac.kr Url http://fund.donga.ac.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신규 후원의 집 (2017년 8월~2018년 1월)

제173호 오리뼈우거지탕

'오리뼈우거지탕'은 2년이 넘는 사장님의 오리요리 연구 끝에 음식 특허(제10-1646206호)를 취득한 부산의 유일한 '오리뼈우거지탕' 전문점입니다. 이 집의 특허 메뉴 '오리뼈우거지탕'에서부터 오리구이, 백숙까지 특별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맛과 영양을 더한 남다른 오리음식을 동아가족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42
- 051-782-1515
- 10:00~22:00

제175호 목포주가

'목포주가'는 명태찜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명태요리 외에도 갈비찜, 백숙, 갈치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찜'과 'LA갈비'는 남다른 맛과 풍미로 이미 많은 미식가들에게 그 맛을 인정받았습니다. 남도음식의 깊은 맛과 정갈한 밑반찬으로 저녁 식사로는 물론, 퇴근 후 간단한 회식자리로도 그만인 '목포주가', 여러분들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중구 동광동 3가 백산길8-1 1층
- 051-231-8987
- 17:00~04:00(매주 일요일 휴무)

제177호 하단돼지구육밥

'하단돼지구육밥'은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가장 자주 찾는 우리대학 인근 최고의 맛집입니다. 사장님의 넓은 인심과 맛에 대한 정성으로 다른 국밥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국밥 한 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다른 맛과 정을 느낄 수 있는 '하단돼지구육밥', 여러분들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141
- 051-207-9223
- 09:30~21:30

제174호 대궁삼계탕&대궁한우

'대궁삼계탕'과 '대궁한우'는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음식 철학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궁삼계탕'은 토종 우리 닭만을 사용하며, 청송 달기 약수물과 듬뿍 넣은 마늘로 우려내어 맛은 물론, 최고의 사계절 보양식으로도 으뜸입니다.

-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2-10
- 051-254-3039
- 11:00~22:00

제176호 영의루

'영의루'는 부민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중식당 '맛집'입니다. 특히, 특제 자장소스에 고추양념을 더한 '고추간짜장'은 수많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집의 대표메뉴입니다. 중국의 전통 요리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이 집만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중국요리,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 서구 구덕로 203
- 051-254-5501
- 11:00~21:00

제178호 더진국 국밥(하단점)

'더진국 국밥'은 국밥의 세계화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밥 대표 브랜드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에서 내·외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중국에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국밥 본연의 맛은 물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얼큰 국밥' 메뉴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더진국 국밥'의 맛,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9-13 섬진1차아파트 1층
- 051-203-6669
- 24시간 영업

기부안내

21만 동문과 함께한 동아의 71년, 이제 21만 동문의 작은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 운동

매월 커피 두잔 값(1만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소액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 당 매월 1만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의 아호를 명명하여 네이밍을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하는 뜻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경동홀

기부자 김재진
경동건설(주) 대표이사

기부액 4억 5천 1백만 원

위 치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3층

면 적 336㎡

용 도 귀빈행사 및 강의



청춘홀

기부자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기부액 2억 원

위 치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1층

면 적 336㎡

용 도 귀빈행사 및 강의



세정휘트니스 센터

기부자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기부액 1억 원

위 치 부민캠퍼스 국제관건물 지하1층

면 적 229.88㎡

용 도 재학생 및 교직원 심실단련



팬코 글로벌존

기부자 최영주 (주)팬코 회장

기부액 3억 원

위 치 부민캠퍼스 국제관건물 1층

면 적 91.50㎡

용 도 외국어 교육의 장

동아 100년 동행

동아대학교 72주년 동아 100년 동행

21만 동문과의 동행으로 동아의 100년 역사를 향해 도약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발전기금 납부방법

동아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면학 분위기(기숙사 건립/도서관 확충/노후 건물 리노베이션)를 조성해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성화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교육·연구지원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교가 강점으로 가진 특정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대학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원확충 및 학술연구 활성화

21C 정보화 지식사회를 선도하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해외석학 초빙, 우수 연구인력 양성, 학술연구활동 지원으로 교육과 연구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급

조성된 기금은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경제력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여대상

동문,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동아를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내용

현금,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자산기부 등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어떠한 물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부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국민은행 118201-04-168318

농협중앙회 944-17-004326

우체국 600783-01-008731

방문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 313호)로 내방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MS납부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신청

전화·방문 약정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대외협력처 TEL : 051)200-6060, 6012~3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donga.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를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팩스

FAX : 051)200-6015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